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성북구상식파괴자

일시	10월 2일 오후 1시~오후 3시 상상관 지하 2층 상상베이스 IB10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백은빈/2431166	○
	조명환/2431174	○
	한상수/2471064	○
진도	도서명 : 마션	진도페이지: 1p. ~ 111p.
1주차	<div data-bbox="627 683 1358 1182"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94 1205 1185 1238">[좌측부터 백은빈,한상수,조명환]</p> <p data-bbox="300 1373 424 1406">토론 내용</p> <p data-bbox="491 1245 836 1272">활동 1: 책을 읽고 인상깊었던 부분</p> <p data-bbox="491 1279 1437 1305">은빈 : 화성에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져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p> <p data-bbox="491 1312 1465 1339">상수 : 식물학,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부분이 멋있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491 1346 1490 1411">명환 : 폭발이 터진후에 와트니가 “이번에도 운이 좋았군”이라고 독백하는데 이부분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가 좋아도 운이 안좋으면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상깊었다.</p> <p data-bbox="491 1451 671 1478">활동 2 : 토론하기</p> <p data-bbox="491 1485 1182 1512">토론주제 1 : 우리가 아레스 대원이라면 화성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p> <p data-bbox="491 1518 1490 1583">은빈 : 우울할 때 감정을 다스리게 정말 많은 음악을 USB에 담아갈 것이다. 정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p> <p data-bbox="491 1590 1490 1655">상수 : 여러가지 책들을 스캔해서 핸드폰에 가져갈 것 또한 핸드폰에 생존일기를 작성할 것 또한 핸드폰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아날로그로도 일기를 작성할 것</p> <p data-bbox="491 1662 1490 1727">명환 : 보물상자에 쪽지와 조금의 돈을 넣고 타임캡슐을 만들어 먼 미래에 누군가 화성에 왔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p> <p data-bbox="491 1767 1490 1832">토론주제 2 : 와트니의 생존사실을 알았을 때 실체라면 와트니를 살리기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하는게 맞을까?</p> <p data-bbox="491 1839 1490 1904">은빈 : 와트니를 구할 것 같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더라도 인간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 =>반박 명환 : 와트니 구출에 드는 천문학 비용을 다른 곳에 쓴다면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p> <p data-bbox="491 1910 1378 1937">상수 : 와트니가 최초로 달성한 업적이 많기에 살려서 데려오는 부분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p> <p data-bbox="491 1944 1490 2009">명환 : 와트니구출에 드는 비용을 아레스4라던지 다른부분에 더 투자를 하여 앞으로 와트니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기 때문에 구하는 적만 한다</p>	

일시	3월 27일 오후1시~오후3시 학술정보관 5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백은빈/2431166	○
	조명환/2431174	○
	한상수/2471064	○
진도	도서명:마션	진도페이지: 112p. ~ 241p.

2주차	 <p>[좌측부터 백은빈, 조명환, 한상수]</p> <p>활동 1 : 인상 깊었던 부분 이야기하기 은빈 : 와트니가 패스파인더를 찾아가고서 통신하려는 노력이 인상깊었고 아스키코드라는 통신방법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나누게 신기했다 상수 : 와트니가 모래폭풍에 휘말려서 실종됐을 때 루이스 대장이 실종사실을 알았음에도 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결단을 내린부분이 대장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인상깊었다 명환 : 나사국장이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왔으면 아레스 팀원들한테 바로 알렸을 텐데 팀원들의 죄책감을 고려하여 이야기 하지 않은게 생각이 깊은거같아서 인상깊었다</p> <p>활동 2 : 토론하기 토론주제 1 : 와트니의 생존사실을 아레스3대원들한테 알리는것과 알리지 않는것중 어떤것이 팀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까? 은빈 : 알리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함께한 팀원들인데 생존사실을 알리는게 더 사기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수 : 알리지 않는다. 알리면 전 동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정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 명환 : 알리는 대신에 현재사실과는 상관없이 생존확률이 매우높고 구조작전이 원활하게 논의중이라고 속여서 팀원들의 사기를 올릴 것 같다</p> <p>토론주제 2 : 우리가 아레스3의 대장이라면 와트니가 실종되었을 때 와트니를 수색하여 데리고갈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은빈 : 모래폭풍이 너무 강했기에 다른팀원들 또한 살리기 위해 와트니를 버린다 상수 : 우주탐사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기에 나머지 팀원을 확실하게 살리는게 이성적 명환 : 단순실종이 아닌 배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의 실종이기 때문에 생존확률이 더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와트니를 버린다</p>
-----	--

3주차	일시	11월 6일 오후 1시~3시 상상베이스 IB107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명환(2431174)	○
		백은빈(2431166)	○
		한상수(2471064)	○
		임형모 교수님	○
진도	도서명: 마션	진도페이지 : 241p. ~ p.400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백은빈, 임형모 교수님, 조명환, 한상수]</p> <p>활동 1.인상깊었던 부분 이야기하기 은빈 : 와트니가 죽을뻔하고 본인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틴게 존경스러웠다. 상수 : 나사 국장이 와트니 한명을 살리기위해서 이지스 7우주선을 빼앗는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도 비난하고 싶지 않기에 인상깊었다. 명환 : 와트니와 메르세데스 팀원의 교신이 가능해졌을 때 나왔으면 대장에게 안좋은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대장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주고 지구에있는 사람이 대장에게 책임을 묻다면 었이나 먹으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와트니의 인간성과 팀원들의 유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깊었다</p> <p>활동 2.책에서 나온 부분으로 토론하기 토론 1.이지스 7으로 와트니에게 식량과 물품을 보관하려던 계획의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가? 은빈 : 나사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밑에서부터 자르면 끝도 없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처내야한다 상수 : 나사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진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 조금더 신중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진행했어야 할 것 명환 : 이지스 7의 조립을 맡은 나사의 직원이 책임을 져야한다 어쨌든 나사 국장의 계획자체는 완벽 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실패했기 때문에 현장을 감독하지 못한 감독관과 실제 조립을 담당할 직원이 책임져야한다.</p> <p>토론 2.와트니의 감자농사가 거하게 실패하였을 때 우린 어떻게 했을까? 은빈 :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고 나사의 지원을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상수 : 옷이나 신발과 같은 보통은 먹지 않지만 끓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먹으면서 버틸 것이다. 명환 : 너무 참혹한 심정이기때문에 막사안에 있는 마약을 복용해서 기분전환 후 심기일전해서 다시 감자농사를 시작할 것이다.</p>		

일시	11 월 13일 오후 1시 50분~3시 장소명 상상베이스 107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명환(2431174)	O
	백은빈(2431166)	O
	한상수(2471064)	O
	임형모 교수님	O
진도	도서명: 마션	진도페이지: 400p. ~ 598 p.

4주차



활동 사진 추가

[좌측부터 백은빈, 임형모 교수님, 조명환, 한상수]

토론 내용

논제 1. 와트니는 식물학자였는데

- 상수 : 의료전공 -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장비와 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크게 다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 은빈 : 용접공(기계학자) - 우주선이나 기타 자제가 고장났을 때 식물학자나 물리학자보다 도움이 될 것 + 심리상담가 같은 팀원들의 멘탈케어
- 명환 : 개그맨 - 와트니도 혼자 남았을 때 TV나 노래를 들으면서 겨우 버텼는데 오락거리가 제한적인 우주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팀원이 한 명쯤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논제 2. : 우주 여행이나 우주에 살 수 있게 되면 해볼 것인지

- 은빈 : 우주여행이나 거주가 가능하게 되어도 하지 않을 것 - 우주에 가면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을 지구에 남기고 왔다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릴 것 + 우주방사선 때문에 건강이 걱정됨
- 상수 : 거주는 하지 않을거지만 여행은 할 것이다. 그냥 해외여행도 재미있는데 달이나 여러 행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 거주는 아무리 개선해도 지구보다 불편할 것 같고 지인들이 다 지구에 있을 것 같다.
- 명환 : 우주여행은 할 것 이지만 거주는 하지 않을 것 나중에 우리가 지구를 버려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우주여행을 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한상수 2471064	<p>생존과 FS 장르에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우주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와트니가 혼자 화성에 고립되고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에 대처하며 식물학 지식으로 농사를 하는 등의 생존 과정이 흥미로웠고 덕분에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p> <p>과학과 관련된 용어나 설명도 책에 종종 나와서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p> <p>와트니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생존을 이어가 마지막에 동료들에게 구출되었을 때가 인상 깊었고 이 책을 읽게 되면서 SF, 생존 장르에도 관심이 더욱 생길 수 있어서 좋았다.</p>
	2	조명환 2431174	<p>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땐 단순히 소문만 듣고 지루한 과학 소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읽으면서 생명을 저울질 해야하는 아레스3팀 대장의 고뇌와 주인공에 대한 나사 국장의 양자택일 등 윤리적으로도 볼거리가 충분했고 화성의 지형과 우주여행에 대한 과학적 지식 또한 새롭게 다가왔다. 즉 이소설은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을 조합하여 소설이라는 예술의 형태로 나타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20대라면 이러한 상상력을 위해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p>
	3	백은빈 2431166	<p>이 작가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먼저 봄으로써 소설을 나중에 시간되면 읽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설로써 다시 마션을 읽어보니 내용이 더욱이 다양하고 새로워서 좋았다. 특히 가장 인상 깊은점은 와트니의 1인칭 시점으로 생존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것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고 글을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인간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주 개발에 눈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니 앞으로 몇 백년후 실제 다른 행성으로 탐사를 할 미래의 모습이 이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친구들과 같이 우주 개발과 우주에서 생활 하는 것과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을 토론하는 것이 매우 신선해서 다음 기회에도 독서토론을 또 하고 싶다.</p>
	4		
	5		